

**【발표 5】**



## 한국 줄다리기의 다양성과 그 의미<sup>69</sup>

한 양 명 | 안동대학교 민속학과 교수

### 1. 머리말

나는 그 동안 한국의 대동놀이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여 왔고, 줄다리기는 그 가운데 핵심적인 것이었다. 현재까지의 조사 결과 한국의 줄다리기는 상당한 지역성을 보여주는 한편 일정한 유형성도 지니고 있었다. 각 지역의 줄다리가 보여주는 다양성이, 문화의 주고받음과 그 지역의 지리생태적·사회문화적·주술종교적 요인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을 것이라는 사실은 짐작이 가지만 현재로서는 그 까닭을 깊이 있게 밝히기는 어려운 형편이다. 따라서 이 글은 현재까지 조사된 자료를 통하여 줄다리기의 다양한 존재양상을 살펴보고, 그런 가운데 드러나는 의미를 살펴보는 데 그칠 수밖에 없음을 밝혀둔다.

줄다리기의 다양성을 살펴보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으나 이 글에서는 몇 가지 기준들을 통해서 그 존재양상을 드러내고, 그것을 바탕으로 한국 줄다리기의 의미를 파악해보려고 한다.<sup>70</sup>

### 2. 줄다리기의 다양성

줄다리기의 다양한 존재양상을 전승집단의 규모, 시공간, 줄의 형태, 편이 구성방식, 줄

---

<sup>69</sup> 이 글은 ‘한양명, 「줄다리기의 다양성과 보편성」, 『실천민속학연구』 제 2 호, 실천민속학회, 2000’을 요약 정리한 것임을 밝혀둔다.

<sup>70</sup> 이 글에서 다루는 줄다리기는 현재 전승되는 것은 물론 과거에 전승되었던 것 가운데 내가 직접 조사했거나, 다른 이가 조사한 결과를 포괄한 것임을 밝혀둔다.

의 처리방식, 줄의 재료, 공동체신에 대한 제사와의 관계 등의 제 부면에서 검토해 보기로 한다.

### 전승집단의 규모

전근대 사회에서 자연공동체는 마을·고을·나라의 세 수준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마을과 고을 사이에 면, 고을과 나라 사이에 도가 존재하였지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들이 강한 자연적 귀속감을 확보하기는 어려운 일이었다. 이에 따라 자연공동체의 축제도 자연히 마을축제·고을축제·나라축제의 세 수준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고대의 국중대회 이래 국가단위의 축제는 점차 불식되어갔으며, 마을축제와 고을 축제가 지방 행정제도의 변화와 농업생산력의 고양 등에 조용하면서 제 자리를 잡아갔다. 줄다리기는 이들 축제의 중심적 연행이었으므로 자연히 고을 단위와 마을 단위의 두 수준으로 전승되었다.

고을의 읍치(邑治)를 중심으로 전승되던 『고을형』 줄다리기는, 평시에는 읍치의 구성원들이 참여하여 소규모로 행하다가 비상적 상황이 되면<sup>71</sup> 고을 사람들 대다수가 마을을 단위로 참여하는 초대형의 줄다리기가 되었다. 전자의 줄다리기를 「단헌고을형」이라고 한다면, 후자의 줄다리기는 「열린고을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단위 마을을 배경으로 전승되던 『마을형』 줄다리기 역시 『고을형』과 마찬가지로 양상을 보여준다. 평시에는 마을 사람들만이 참여하여 소규모로 줄을 당기다가 비상적 상황이 되면, 인근 마을의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는 대규모의 줄다리기를 행하였다. 전자를 「단헌마을형」이라고 한다면, 후자는 「열린마을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외집단의 참여가 보장되는 「열린마을형」의 줄다리기는 모든 마을에서 가능했던 것이 아니라 대개 역촌, 면소재지, 시장의 소재지, 군사적 요충지 등 대촌에서 가능했다. 이처럼 차별적으로 존재하던 줄다리기에 대한 민속 분류체계가 통용되었다. 외집단의 참여가 보장되는 줄다리기는 ‘큰줄’이라고 하였으며, 그렇지 않은 줄다리기는 ‘골목줄’, ‘동네줄’, ‘애기줄’ 등으로 불렸다.<sup>72</sup>

### 시공간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 한국의 줄다리기는 일정한 시기에 행해지는 것과 특별한 경우에 임시로 행하는 두 종류가 있다. 후자는 매우 특별한 경우로서 심한 가뭄이 들거나 역병이 돌 때 행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정한 시기에 행할 경우에는 그 시기는 거의 대보름을 전후한 때이다. 그러나 문헌을 검토하여보면 단오와 추석에도 줄다리기를 하였음이 나

71 풍년이나 대규모 토목공사 등으로 특별히 경축할 만한 일이 있을 때, 또는 흉년이나 질병 등 공동체 차원에서 대처해야 할 위기가 닥쳤을 때가 여기에 해당한다.

72 한양명, 「줄다리기의 공동체적 성격에 대한 연구」, 『남도민속학의 진전』, 태학사, 1998, pp.629-630.

타난다. 『학성지』에 의하면 울산지역에서는 마두희(馬頭戲)라는 이름의 줄다리기를 매년 단오에 행하였다고 한다.<sup>73</sup> 또한 『동국세시기』에 의하면 제주에서는 조리지희(照里之戲)라고 하는 줄다리기를 매년 추석에 행하였음이 나타난다.<sup>74</sup> 이와 같은 자료들로 미루어 볼 때, 단오와 추석 역시 줄다리기의 연행 시기였음을 알 수 있으나 언제부터 대보름을 전후한 시기로 일원화하였는지는 상고하기 어렵다.

줄다리기의 연행공간은 기본적으로 줄을 당기는 데 불편함이 없는 넓고 긴 공간이면 족하다. 줄의 규모에 따라서 각 지역의 지리적 여건에 맞게 연행의 공간이 결정된다. 내륙 지역에서는 일반적으로 넓은 논밭이나 큰 길이 채택되며, 소규모일 경우에는 골목에서도 가능하다. 한편 내륙지역이라고 하더라도 큰 강을 끼고 있는 지역에서는 강변의 공터를 이용하는 경우도 나타난다. 탐진강변에서 큰줄을 당긴 전남 장흥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에 비해서 해안 지역에서는 대체로 해변의 백사장에서 줄을 당기는 경우가 상당히 나타난다. 동해 연안 지역의 줄다리기가 여기에 해당한다.

### 줄의 형태

한국의 줄은 쌍줄과 외줄의 두 형태가 있다. 외줄은 호남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며 쌍줄은, 외줄을 당기지 않는 호남 지역과 그 밖의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다. 외줄은 하나의 줄이므로 별도의 성 구분이 없으나 쌍줄은 암줄과 숫줄로 구분된다. 외줄의 형태에서는 아직까지 특별한 변이형이 나타나지 않는다. 줄을 당기기 위해서 별도의 줄을 마련하지 않고 통째로 ‘몸줄’을 잡아당기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비해서 쌍줄은 분명한 변이형이 나타난다. 대개의 경우, 하나의 몸줄에 수많은 ‘종줄’을 달아서 사람들은 그 종줄을 잡아당기는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이것을 ‘지네줄’이라고 부른다. 이에 비해서 강원 삼척과 부산 동래의 경우에는 몸줄 자체가, 여러 개로 이루어지고, 거기에 다시 종줄을 매달아 당기는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이것을 ‘기줄[게줄]’이라고 부른다.

줄의 형태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게줄’인데, 놀이도구는 길이 5~6m 정도의 가는 줄이다. 이 줄의 끝을 연결하여 각기 반대 방향으로 엮드린 두 사람의 몸 뒤에서 사타구니 사이로 줄을 빼내 목에 걸고, 자기 방향으로 엉금엉금 기어나가 끌려가는 쪽이 지는 놀이이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경남 밀양시 감내의 게줄다리기가 있으며, 경북의 울진과 영덕, 풍기 그리고 선산 지역에서도 같은 형식의 놀이를 확인할 수 있다.<sup>75</sup>

73 『鶴城誌』, 풍속조.

74 『東國歲時記』, 8월 추석 조.

75 한양명, 「몇 사례를 통해 본 울진 줄다리기의 지역성」, 『민속연구』 제 8 집,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1998, pp.151-152.

## 편 구성의 방식

줄다리기는 자연공동체의 구성원들을 두 편으로 갈라서 진행하는 편싸움이다. 편을 가르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남성과 여성으로 편을 가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공동체의 공간을 크게 둘로 나누어서 편을 가르는 것이다. 남녀별로 편을 가를 때, 여성편에는 여성뿐만 아니라 미혼의 남성들도 포함된다. 남성 편에는 기혼 남성들만이 포함된다. 가령 부부와 미혼의 세 자녀들로 이루어진 핵가족이 있다면 아버지만 남성 편에 속하고, 어머니를 비롯하여 미혼의 자녀 셋은 여성 편에 속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지역별로 편을 가르는 경우에는 동/서, 남/북, 상/하 등의 기준에 따라서 나누는 것이 일반적이다.<sup>76</sup> 남녀별 편구성 방식은 모든 외줄다리기와 호남 및 경기 일원의 쌍줄다리기에서 보편적이다. 이에 비해서 지역별 편구성은 위의 예외를 제외한 대부분의 쌍줄다리기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난다.

편구성의 방식과 연관하여, 남녀별로 편을 구성하는 지역에서는 여성의 승리가 풍요다산을 주술종교적으로 보장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진정한 경쟁으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가 있다.<sup>77</sup> 하지만 이와 같은 견해는 경쟁적 놀이의 속성과 편구성의 구조적 요인을 살피지 못한 결과이다. 실제로 남녀별로 편을 구성하여 줄을 당기는 현장에 가보면 양편은 온 힘을 다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문제는 애초에 남성편이 불리하게 편을 구성하는 관행에 있는 것이지 일부러 져주는 것은 아닌 것이다.

## 줄의 처리 방식

줄다리기가 끝난 후의 줄 처리는 『소비형』과 『보존형』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소비형』은 다시 「즉시소비형」과 「송액형」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대부분의 쌍줄다리기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후자는 주로 한강변의 강촌(江村)에서 나타나는 특별한 형태이다. 『보존형』은 「일년보존형」과 「영구보존형」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줄을 동신의 신체인 당산에 감아두었다가 다음해 줄을 당긴 후에 새 줄로 교체하는 형태로 외줄다리기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영구보존형」은 줄을 동신으로 섬기며 영구 보존하는 형태이다.<sup>78</sup>

「즉시소비형」은 줄다리기가 끝나면 줄을 토막내거나 통째로 사용하는 것이다. 줄의 사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속신들이 있다.

76 경남 의령의 줄다리기는 거주지별로 편을 구성하지만, 그가 만약 상대 편 지역에서 태어났다면, 현재의 지역을 무시하고 원래의 지역을 쫓아가는 특별한 모습을 보여 준다. 이와 같은 양상은 안동 차양놀이에서도 나타난다.

77 차기선, 「한국의 줄다리기」, 『한국문화인류학』 14, 한국문화인류학회, 1982, p.91.

78 한양명, 「줄다리기의 주술종교적 성격과 기능체계」, 『민속연구』 제 4 집, 1994, pp61-63 참조.

- 줄을 지붕위에 얹어 놓으면 집안에 액이 들어오지 않는다.
- 논밭에 놓으면 곡식이 잘 된다.
- 대문 앞에 걸어두면 액이 침범하지 못한다.
- 불임녀가 달여 먹으면 아기를 갖는다.
- 병자가 달여 먹으면 병이 완쾌된다.
- 배 위에 싣고 바다에 나가면 풍어 진다.
- 보를 막으면 물이 풍부해지고 가뭄 들지 않는다.

모두 줄이 갖고 있는 제액 내지는 방액적 효능에 기초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줄다리기가 공동체적 차원에서 제액을 통한 안과태평을 기원하고 있다면, 줄다리기로 주력(呪力)을 확보한 줄은 각 집안 단위의 제액과 안과태평의 보증에 기여하는 것이다. 따라서 「즉시소비형」의 쌍줄다리기에서는 줄의 효용이 마을 차원에서 집 차원으로 세분화, 심화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송액형」은 줄다리기가 끝나면 줄을 둥그렇게 쌓아두고, 그 해에 떠나려가면 길하다고 믿는 것이다. 경기 여주의 혼암리에서는 줄을 얼어붙은 강 위에 길게 늘어 두었다가 봄에 해빙이 되어 떠나려가면 마을의 액도 함께 떠나려간다고 믿었다. 충북 증원 목계에서도 암줄과 솟줄을 강 위에 나란히 놓아두고 장마에 암수줄이 함께 떠나려가면 매우 길하다고 믿었다.<sup>79</sup> 한편 충남의 아산에서는 용왕제에 이어 줄다리기를 한다. 이 때, 줄은 용왕의 신체가 된다. 용왕제에서는 만신 [무당] 을 청해다가 용왕에게 수액(水厄)과 재난을 없애고 가가호호에 복을 주도록 빈다. 이어서 줄다리기를 하고, 줄을 강가에 뱀이 꼬리를 튼 모양으로 쌓아둔다.<sup>80</sup> 줄이 떠나려감으로써, 즉 수물(水物)인 용이 거처인 강으로 돌아감으로써 마을의 액도 함께 소멸된다고 믿는다.<sup>81</sup>

「일년보존형」은 줄다리기가 끝난 후에 줄을 훼손하지 않고 그 줄을 동신인 당산에 감아두는 형태이다. 김택규는 줄을 성기의 상징으로 보고 전북 김제 입석리의 예를 들어 당산에 줄을 감아두는 행위를 생산의례로서의 성행위의 상징으로 보고 있다.<sup>82</sup> 강현구는 이 과정을 용을 마을로 모셔와 무사태평을 빌고, 풍년을 기원하는 용사신앙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다.<sup>83</sup> 줄을 당산에 감는 것을 당산에 옷을 입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이미 그것이 의식되던 그렇지 않던 간에 용신과 당산의 결합을 의미하는 것이다. 전북 부안읍

79 한국문예진흥원, 『한국의 축제』, 1987, p.143.

80 아산의 용왕제와 뒤이어 행해지는 줄다리기는 용섬김과 자극 모티프의 공존을 보다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81 鄭華永, 「아산줄다리기」, 무형문화재조사보고서 97, 文化財管理局, 1972.

82 김택규, 『한국 농경세시의 연구』, 영남대출판부, 1985, p.235.

83 강현구, 「줄다리기 小考」-康津地方을 중심으로-, 『湖南郷史會報』 제 2 호, 湖南郷史會, 1991, p.45.

돌모산의 당산제 축문에서는 이를 “헌옷을 벗고 새 옷을 갈아입는다.”고 표현하고 있다.<sup>84</sup> 차기선은 이를 두고 당산에 개별성을 부여해주고 인격화시켜서 부락의 한 멤버로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하였다.<sup>85</sup> 현상적으로는 이렇게 해석될 수 있을 것이나 그 심층에는 역시 용신과 당산의 결합이라는 모티프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

김제 입석리뿐만 아니라 전북 정읍군 정량과 부안을 내요리에서도 여성 편에서 당긴 줄을 당산의 아랫부분에 감고 그 위에 남성 편이 당긴 줄을 감아둔다. 이와 같은 사정은 대부분의 외출다리기 지역 및 호남지역의 쌍줄다리기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는 경북 포항시 모포의 골매기줄과 마찬가지로 성행위의 모의이다. 따라서 당산에 줄을 감는 것을 거대한 성기와 당산의 결합으로 보거나, 당산의 인격화로만 보는 것은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전술했듯이 이 행위의 1차적 의미는 마을의 안과태평을 좌우하는 동신과 농사의 풍흉을 좌우하는 용신의 결합을 통한 풍요다산의 기원에 있고, 2차적 의미는 당산으로 표상되는 마을의 범역 내에서의 용신의 성행위를 통한 일년간의 풍요의 지속적 보증에 있다고 하겠다.

「영구보존형」 가운데 줄을 동신의 신체로 인식하는 지역으로는 경북 포항시 장기면 모포리가 있다. 이 마을에서는 암줄을 골매기할매, 숫줄을 골매기할배로 인식한다. 줄다리가 끝나면 줄을 동사에 보관하는데 그 때의 보관방식은 앞에서 살펴본 ‘당산옷입히기’와 같은 맥락에 있다. 암줄을 밑에 깔고 숫줄을 위에다 덮는 것이다. 전승집단은 이를 할매와 할배의 성적 교섭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당산옷입히기’와는 달리 동신=줄이라는 점에서 차이를 보여준다.

## 줄의 재료

일반적으로 줄은 짚으로 만든다. 그러나 울진 해안 지역을 비롯한 동해 연안 지역에서는 1920-30년대에 이르러 짚으로 줄을 만들기 이전에 칩으로 줄을 만들었으며 그 이후 어업에 사용하는 마닐라 삼과 나일론으로 만든 로프를 이용하여 짚을 만들었음이 나타난다.<sup>86</sup> 문헌자료와 여타의 자료를 살펴보면 짚 외에도 칩과 삼(麻)이 줄의 주된 재료로 사

<sup>84</sup> 축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維歲次癸酉正月甲辰朔十五日戊午幼學敢昭告于 顯陣堊祖 神主氣序流易維孟春世世年年享祀舉行舊皮脫服新皮著衣部落全員伏願無病長壽富貴榮華時和年豐雨順豐調成就謹以清酌脯醢敬神謹具虔告 尚饗。

<sup>85</sup> 차기선, 앞의 글, p.97.

<sup>86</sup> 울진군 기성면 직산 1, 2 리와 거일, 영덕군 병곡면 백석 1, 2 리의 줄다리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밖에도 울진, 영덕 포항의 다수 지역에서도 역시 이와 같이 ‘칩 → 짚 → 마닐라삼 → 나일론’으로 줄의 재료가 변화하였음이 보고되었다(김호태, 「대보름 민속놀이의 제의성 연구」, 안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5, pp.48-49 참조). 한편 강운의 요지였던 서울 마포의 도화동 줄다리에 사용된 줄의 재료도 역시 배의 로프였다(서울시文化財委員會, 『서울民俗大觀』 3 -세시풍속과 놀이편-, 서울特別市, 1993, p. 538).

용되었으며 대나무와 나무껍질 등이 보강재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동국세시기』의 대보름 조에 소개된 갈전(葛戰)은 칩이 줄을 만드는 재료로 사용되었음을 암시한다. 현전하는 경북 영일군 장기면의 모포줄은 칩을 주재료로 하고 굴피[나무껍질]로 보강한 것이다. 이 칩줄은 짚줄에 비해서 내구성이 강해서 영구 보존될 수 있는 바탕이 된다.<sup>87</sup> 무라야마(村山智順)가 보고한 칩줄도 마찬가지이고<sup>88</sup> 원래 부녀자들이 삼베, 짚, 늑다리, 칩넝쿨 등으로 꼬아서 작은 줄을 당긴 데서 출발하였다고 하는 충남 당진의 기지시 줄다리기의 경우도 짚 이외의 재료로 줄을 만든 사례가 될 것이다.<sup>89</sup> 이로 보아 각 지역에서는 그 지리생태적 환경과 생업의 속성에 따라서 칩과 삼, 그리고 벗짚 등을 줄의 재료로 사용하다가 수도재배의 일반화로 양질의 벗짚을 확보하는 것이 용이해지면서 짚으로 일원화하였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아직 그 전통이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줄의 보강재로는 대나무가 가장 보편적으로 이용되었다. 동해의 삼척에서부터 서남해의 장흥에 이르기까지 대나무의 이용이 나타나며 그 분포는 아마도 대나무의 북방한계선과 일치할 것으로 보인다.

### 앞놀이와 뒷놀이

줄이 다 만들어지면 줄다리를 시작하기 전에 앞놀이를 한다. 이 앞놀이는 줄의 규모와 형태에 따라서 구별된다. 먼저 일정 규모를 갖춘 쌍줄의 경우, 각 편이 줄머리[고] 위에 사람을 태우고 마을을 돌아다니다가 상대편과 마주치면 공중에서 줄머리를 맞부딪혀 승부를 겨룬다. 대표적인 것이 광주 광산구 옷돌마을의 고싸움이다. 고싸움은 현재 독립적인 놀이로서 행해지고 있으나 사실은 쌍줄다리기의 앞놀이로서 상당히 보편적인 것이었다. 경남 창녕군 영산의 골목줄다리에 앞서 행해진 이싸움, 충북 단양의 용두싸움, 경북 울진 죽변 후정의 용머리싸움, 그리고 전남 장흥읍의 고싸움, 경남 밀양 무안의 용호놀이 등은 바로 옷돌마을의 고싸움과 같은 형식의 앞놀이였다. 이들 앞놀이는 말 그대로 앞놀이에 불과하였으며 최종의 승부는 줄다리기에서 결정되게 마련이었다. 한편 외줄다리기의 경우, 쌍줄다리기처럼 양식화된 앞놀이는 존재하지 않지만 ‘마실돌기’라는 독특한 놀이가 존재한다.<sup>90</sup> 줄이 다 만들어지면 남녀노소가 함께 줄을 메고 마을의 거주 영역을 돈다. 이때 각종 깃발을 앞세운 풍물패가 신명을 돋운다.

한편 줄다리에 이어서 행해지는 뒷놀이로 이제까지 보고된 것으로는 전남 순천 지역

87 任東權, 「모포줄다리기」, 『無形文化財報告書』 제 155 호, 文化財管理局, pp.562-563.

88 村山智順/박전열 역, 『조선의 향토오락』, 집문당, 1993, p.171.

89 李禹永, 『機池市줄다리기』, 集文堂, 1986, p.11.

90 다수의 『마을형』 쌍줄다리기에도 이와 같은 과정이 존재한다.

의 싱전[勝戰]놀이와 경북 의성 점곡면 사촌리의 박시싸움, 그리고 전북 정량의 ‘징싸기’가 있다. 싱전놀이는 이긴 편에서 빈 상여를 메고 진 마을을 찾아가 놀리면 진 마을에서 이에 대응하는 놀이이고, 박시싸움은 양편이 스크럼을 짜고 서로 돌파를 시도하여 먼저 돌파하는 쪽이 이기는 놀이이며, ‘징싸기’는 줄을 메고 각종 진(陣)을 꾸미면서 풍물에 맞추어 흥겹게 노는 놀이이다. 이와 같은 뒷놀이들은 앞놀이들에 비해서 임의성이 강하며 놀이형식이 줄다리기와 직접적 관계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들 놀이는 각각 출상 전날에 행해지는 빈상여놀이와 독립적으로 행해진 인근 지역의 박시싸움, 그리고 ‘마실돌기’와 풍물의 진법에서 그 원형을 찾아볼 수 있는 놀이로서 양식적 독자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서 경북 영천 지역의 줄다리기 뒷놀이인 곳나무싸움은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곳나무싸움은 줄을 결합할 때 사용하였던 ‘곳나무’를 두고 벌어지는 쟁탈전이다. 사람들은 줄다리기의 승부보다는 곳나무싸움에 보다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 줄다리기의 승부가 결정되면 미리 줄머리에 배치되어 있던 양편의 싸움꾼들은 곳나무를 쟁취하기 위해서 격돌한다. 그리하여 뺏고 뺏기고 숨기고 찾는 싸움이 길게는 이월 초하루까지 계속되어 그때까지 곳나무를 보관하고 있던 편이 승리하게 된다. 이러한 양상은 앞에서 살펴본 뒷놀이들은 물론 고싸움류의 앞놀이, 그리고 마실돌기류의 앞놀이와도 분명하게 구별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놀이는 줄다리기에 이어서 행해지고 줄다리기의 부속품인 곳나무를 활용하는 것으로 보아, 줄다리기에서 비롯된 것이 분명한 놀이이지만, 사람들이 줄다리기보다 흥미로운 놀이로 인식하였고, 양식적 독자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뒷놀이나 앞놀이와는 분명하게 구별되는 면모를 지니고 있다.<sup>91</sup>

### 공동체신에 대한 제사와의 관계

줄다리기는 공동체 신에 대한 제사, 그리고 여타의 민속예술들과 함께 축제를 구성한다. 축제에서 줄다리기는 제사와 일정한 방식으로 결합되어 있다. 마을 단위로 이루어지는 호남의 외줄다리기와 쌍줄다리기는 제사가 거행되는 당일에 제사에 앞서서 행해진다. 『선놀이 후제사형』인 것이다. 이와 달리 여타 지역의 쌍줄다리기는 대부분 제사 당일에 행해지지 않고 그 다음날이나 며칠이 지난 후에 행해진다. 『선제사 후놀이형』이라고 할 수 있다. 『선놀이 후제사형』에서 줄다리기와 제사는 아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들 지역에서는 줄만들기, 줄긋, 마을돌기, 줄다리기, 제사, 뒷풀이 등이 하루 동안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며 그 과정이 매우 유기적이다. 이에 비해서 『선제사 후놀이형』에서 줄다리기와 제

<sup>91</sup> 한양명, 「곳나무싸움: 그 뺏음과 빼앗김, 숨김과 찾아냄의 축제적 드라마」, 『비교민속학』 제 15 집, 비교민속학회, pp.149-153 참조.





서는 「즉시소비형」을 취하고 있다. 한편 성별로 편을 구성하는 경우에 경기 지역은 「즉시 소비형」, 호남지역은 「일년보존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양상은 공동체신에 대한 제사와의 관계와도 연관된다. 외줄은 예외없이 「선놀이 후제사형」을 취하고 있으나 쌍 줄의 경우 다양한 양상이 나타난다. 지역별로 편을 구성하는 지역에서는 「선제사 후놀이형」이 일반적이지만 성별로 편을 구성하는 지역에서는 양상이 달라서 「즉시소비형」의 지역에서는 「선제사 후놀이형」, 「일년보존형」의 지역에서는 「선놀이 후제사형」이 나타난다. 이처럼 한국의 줄다리기는 단순하게 줄의 형태로만 변별할 수 없으며 다양한 요소들의 유기적 관련 속에서 일정한 유형성을 보여주고 있다.

### 3. 줄다리기의 의미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 정기적으로 관행된 줄다리기는 대부분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집단적 전이(liminal)의 시공간에서 행해졌으며 일부 지역의 경우 단오나 추석에 행해졌다. 흔히 대보름·단오·추석 등은 ‘명절’이라는 말로 수용되고 있으나 그 문화적 성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들 명절들은 해(年), 계절, 또는 생업력 상의 전환점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일 년이라는 시간을 조직화하고 체계화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던 지연공동체 차원의 축제에 다름 아니었다. 축제로서 이들 명절은 일상과 대국(juxtaposition)적 관계에서 비밀상적 시공간을 창출하였으며, 대동놀이는 비밀상적 시공간에서 행해진 집단적 인간행위로서 축제의 대국성을 최고로 실천하는 기제로서 자리잡고 있었다. 이 가운데 줄다리기는 지신밟기, 강강술래 등의 비경쟁적 대동놀이들과 함께 축제의 집단성을 실현하는 중심적 연행으로 자리 잡고 있었으며 남녀노소가 함께 평등하게 참여한다는 점에서 최고의 대동을 구현하는 대동놀이였다. 다양한 대동놀이 가운데 특히 줄다리가 가장 보편적으로 축제의 중심적 연행이 될 수 있었던 원인 가운데 하나도 이와 같은 참여주체의 개방성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줄다리기의 축제성은 일상의 차별적 질서가 줄다리기의 연행과정에서 약화되거나 무화되는 데서 여실히 드러난다. 큰줄다리기에서 일반적으로 등장하는 ‘줄대장[패장, 장군]’은 하나의 보기이다. 대개 공동체의 중농이나 부농, 또는 유력한 하층민 가운데서 선임되는 줄대장은 줄다리를 준비하고 연행하는 기간 동안 축제적 지도자로서, 그에게 위임된 축제적 권위를 기반으로 해당 공동체를 영도한다. 영산의 경우 대장의 집에는 대장기가 꽂히며, 거동시에는 소나 말을 타고 풍물패를 동행한다. 일상적 사회 질서 속에서 평민에 불과했을지라도 축제의 기간 중에 그는 지도자로서 군림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면모는, 그 맥락은 다르더라도 카니발 왕(carnival king)을 연상시키는 바가 있는 것으로서 일상에

서 엄존하는 지배의 질서가 축제의 질서로 대체되는 상황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라고 하겠다. 다른 한편으로 줄을 당길 때의 인간관계에서 드러나는 일상적 질서의 전도 내지는 무화, 약화 역시 줄다리기의 축제성을 잘 보여준다. 전라도의 외줄다리기에서 드러나는 여성편의 압도적 우위는 남성중심의 일상세계가 전도되는 양상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남녀가 일체가 되어 진행되는 쌍줄다리기에서도 이러한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예컨대 경북 울진군 평해읍 월송 줄다리기의 경우, 갓 시집온 새댁이 줄다리에 참여하여 어떤 남정네의 사타구니 밑으로 손을 넣어 줄을 잡고 당겼는데 알고 보니 시아버지더라는 에피소드는 ‘함께 줄을 당긴다’는 것 이외에 어떤 차별적 가치도 존재하기 어려운 줄다리기의 축제성을 잘 보여준다고 하겠다. 또한 암줄과 숫줄로 표상되는 거대한 성적 결합과 결합 당시의 노골적인 성적 언술, 그리고 같은 편에 속한 남성과 여성의 신체적 접촉은 성적 표현 및 교류의 공식화가 지배 이데올로기에 의해 금압된 일상의 금기를 깨뜨리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sup>92</sup>

한국 줄다리기의 주술종교적 성격은 지모신앙(地母信仰)과 성행위의 모의를 통한 풍요다산의 기원, 그리고 용사신앙[龍神信仰]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먼저 지모신앙의 문제를 살펴보자. 어떤 형태의 줄다리기이건 여성 편을 승리를 농사의 풍년 내지는 호시절과 연관 짓는 점세의 방식은 일반적이다.<sup>93</sup> 남녀별로 편을 구성하는 외줄다리기의 경우는 두말할 나위도 없거니와 쌍줄의 경우에도 대체로 여성을 상징하는 좌향인 서부, 아래쪽, ‘마쪽’의 승리가 풍년 또는 호시절을 미리 알려주는 징표로 해석되고 있다. 이처럼 여성편의 승리를 긍정적인 결과로 해석하는 것은 대지의 생산신인 지모신에 대한 믿음과 일정하게 연관된 것임이 지적되고 있다. 농경을 위주로 하는 사회에서 생산의 담지자인 지모신에 대한 믿음은 필연적이며 이러한 믿음이 대동놀이에도 투사되어 여성을 상징하는 좌향의 승리가 곧 지모신의 승리로 해석되는 관행이 일반화하였을 것으로 유추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성행위의 모의를 통해 풍요다산을 기원하는 문제를 살펴보자. 쌍줄다리기에서 암숫줄을 결합시키는 것은 양성의 결합으로 인식된다. 경기 성남과<sup>94</sup> 경북 울진 후정 등의 지역에서는 암줄과 숫줄이 각기 암룡과 숫룡이라고 말해지며 두 줄의 결합은 암숫룡의 성적 결합으로 인식하고 있다.<sup>95</sup> 여타의 지역에서는 암룡과 숫룡의 결합이라는 사실은 별로 의식되지 않고, 그 실체가 불분명한 남성과 여성의 결합이라는 사실만이 강조된다.

<sup>92</sup> 한양명, 「줄다리기의 공동체적 성격에 대한 연구」, 『남도민속학의 진전』, 태학사, pp.631-632.

<sup>93</sup> 지역에 따라서 남성을 상징하는 편을 승리를 풍요다산과 연결 짓는 경우도 나타나지만 보편적인 것은 아니다.

<sup>94</sup> 한국문예진흥원, 앞의 책, pp.200-201.

<sup>95</sup> 울진 후정에서는 이 결합을 암룡과 숫룡이 ‘예를 올리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때의 예는 혼례로서, 이 표현 속에는 섬김의 대상, 혹은 위무의 대상으로서의 용이 전제되어 있다.

1993년에 행해진 경남 창녕의 영산줄다리기의 경우, 무려 한 시간 가까이 옥신각신 하는 가운데 대단히 강하고 직설적이며, 희화화(戲畵化)한 성적 언술을 주고받았다.<sup>96</sup> 이는 비단 영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쌍줄을 당기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분명히 양줄의 결합을 성행위의 시작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은 줄을 당기는 과정이 용과 호랑이의 싸움으로 인식되는 밀양군 무안의 용호놀이와 울진군 월송의 줄다리기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용호의 싸움과는 별도로 양줄의 결합은 성적 결합으로 인식되고 있다.

쌍줄과 달리 외줄에서는 양성의 결합이라는 모티프가 표면적으로는 나타나지 않지만 남녀가 각기 한편을 이루어 줄을 통해서 결합하고, 성을 거름으로써 ‘양성의 표상 → 결합 → 상호작용’이라는, 쌍줄과 동일한 순차적 전개를 보여줌으로써 쌍줄과 같은 차원에서의 의미해석을 가능하게 해준다. 게다가 외줄의 편구성에서 여성편은 미혼남성과 여성들로 구성되어 남녀간의 직접적인 접촉의 범위가 확대된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또한 줄다리를 마치고 줄을 당산에 감을 때, 여성편이 당긴 줄을 아래에 감고 남성편이 당긴 줄을 그 위에 포개 놓으며 이를 성적 교섭으로 해석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한편 경기 송탄의 동령 줄다리기와 이천 갈매울 줄다리기<sup>97</sup>, 그리고 앞의 울진 월송줄다리기의 경우, 줄머리에 신랑·신부 분장을 한 사람이 올라타서 혼례를 모의하는 과정까지 나타나서 성적 결합이라는 모티프가 가장 다양하게 구사되고 있다. 이와 같은 양성의 결합은 생명의 형태와 행위 사이의 연대성에 기초한 것으로서 인간의 직접 성행위, 혹은 모의적 성행위가 풍요다산을 유감한다는 믿음에 근거하고 있다.<sup>98</sup>

다음으로 줄다리기에서 드러나는 용신신앙의 문제이다. 한국의 용신신앙은 수신과 농신의 성격을 함께 갖고 있다. 줄다리는 특히 농경과 관련된 용신앙이라는 측면에서 주목되어야 할 것이다. 줄과 용의 관계를 보여주는 사례들은 곳곳에서 나타난다. 전북 정읍군 정량에서는 완성된 외줄의 앞부분을 용대가리라 하고, 뒷부분을 용꼬리라고 한다. 경북 울진 후정에서는 암줄을 암룡, 숫줄을 숫룡이라고 한다. 경기 여주군 혼암 등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강원 횡성에서는 ‘용줄’에 비늘까지 달아서 용을 형상화시키고 있다. 한편 경남 밀양군 무안, 경북 울진군 월송에서는 암줄을 용이라 하고 숫줄을 호랑이라고 하지만 이런 예외는 일부 지역에서만 나타난다. 충남 당진의 기지시 줄다리기 기능보유자인

<sup>96</sup> 1993년에 행해진 영산줄다리는 다른 행사와 함께 치러졌기 때문에 연행시간이 제한되어 있었다. 따라서 줄을 결합하는 데도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지만 원래는 대단히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다고 하며 이는 어느 지역에서나 마찬가지였다. 이에 비해서 한국의 쌍줄다리기와 흡사한 일본 오끼나와의 쌍줄다리기에서 양줄의 결합은 다툼의 과정 없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崔仁鶴, 「韓國.中繩比較民俗學試考」, 『比較民俗學』 1집, 比較民俗學會, 1985, p.114).

<sup>97</sup> 한국문예진흥원, 『앞의 책』, p.271.

<sup>98</sup> M.Elide/이은봉 역, 『종교형태론』, 형설출판사, 1992, pp.390-391 참조.

이우영은 줄나가는 장면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줄이 나아가는 그 광경은 모든 행사 중에서 가장 성대한 큰 행진이며 장엄한 광경이다. (줄이) 풍운조화를 일으키는 용으로 화하는 것이다..... 이때면 반드시 바람이 난다. 먼지도 오르고 티끌도 오른다. 이래서 용의 조화라, 신의 조화라 하며 ..... 금년엔 반드시 풍년이 들게다 하는 말이 나오게 된다.<sup>99</sup>

줄이 나아가는 장면을 용이 풍운조화 속에 승천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그 용이 신이한 능력을 보이므로 올해도 풍년이 들 것이라는 믿음이 깔려 있다. 줄을 메고 나가 는, 혹은 마을을 도는 장면은 곧 용이 꿈틀거리는, 그리하여 공중을 날아다니는 것으로 인식된다.

마을을 단위로 행해지는 쌍줄다리기에서는 대개 줄 당기는 장소로 이동하기 전에 줄을 메고 동신을 방문하는 과정이 있다. 용과 동신의 해후인 셈이다. 이 해후는 용이 동신을 배알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며 사람들은 동신에게 줄다리가 사고 없이 이뤄지길 기원한다. 올진 후정에서는 줄다리기 전후에 줄을 메고 서낭당으로 가서, 줄을 또아리 모양으로 틀어놓은 뒤 서낭에게 고한다. 이 과정의 전, 혹은 후에 앞놀이가 행해진다. 양편 줄의 마주침으로 시작되는 이 싸움을 흔히 ‘용얼림’, 혹은 ‘용머리싸움’이라고 부른다.<sup>100</sup> 양편의 줄머리가 공중에서 맞닥뜨리는 것을 용들 사이의 싸움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올진 후정에서 줄을 메고 나가며 부르는 노래는 보다 분명하게 줄=용의 관계를 보여준다.

가자가자 어서 가자 / 줄땡기로 어서 가자 / 용 위에서 마실 보니 / 가자가자 어서 가자.

줄을 메고 마을을 돌 때는 대개 줄 위에 사람을 올려 태운다. 이 사람이 줄노래의 앞소리꾼이게 마련이다. ‘줄 위’를 ‘용 위’로 보는 것은 줄=용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상의 사례들로 미루어 볼 때 줄과 용을 동일시하는 사유가 대부분의 지역에서 보편적으로 존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문제는 줄다리에 반영된 용신앙이 어떠한 양상으로 존재하고 있는가이다. 농경제의에서 드러나는 용에 대한 태도는 양면적이다. 기우제와 용단지는 용에 대한 양면적 태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것들이다. 기우제를 비롯한 대부분의 기우행위에서 용은 자극 내지는 학대를 받음으로써 제의집단의 의도를 달성해주는 존재이다. 이와 달리 가신의 한 형태인 용단지 신앙에서는 용이 섬김의 대상으로서 자리잡

<sup>99</sup> 李禹永, 『機池市 줄다리기』, 集文堂, 1986, pp.48-49.

<sup>100</sup> 丹陽郡, 『내고장 전통 가꾸기』, 1982, p.301.

고 있다. 특히 민간 차원에서 관행된 용신앙의 이러한 양면성을 줄다리기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용이 섬김의 대상으로서 자리 잡고 있는 경우를 살펴보자. 외줄다리기에서는 줄이 다 만들어지면 줄을 길게 늘어놓고 줄곳을 친다. 쌍줄다리기에서는 줄고사를 올린다. 전북 정읍군 정량에서는 완성된 외줄을 당길 장소로 운반한 뒤 풍물패들이 용머리와 용꼬리를 세 번 왕복하며 풍물을 친다. 쌍줄인 경남 창녕 영산 및 경북 울진 월송에서는 줄머리, 즉 용머리 앞에 간단히 주과포를 차리고 고사를 올린다. 역시 쌍줄인 경북 청도 화양의 경우 줄고사 축문은, 줄바탕의 지신에게 줄다리기의 무사한 진행과 고을의 무사태평, 풍년을 기원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으나<sup>101</sup> 축식(祝式)으로 보아 근래의 것이고 원래는 정량과 마찬가지로 풍물로 가름되는 줄곳 형식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에틱한 관점에서 살펴보자면 줄곳이건 줄고사건 줄을 대상으로 행해지며 제보자들이 의식하는 지신이 곧 용신의 다른 모습의 하나라는 점에서 식전(ceremony)화된 ‘용섬김’의 모티프를 읽을 수 있다. 대부분의 외줄과 일부 쌍줄다리기에서 나타나는 마을돌기 역시 ‘용섬김’과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줄다리기에 앞서 마을 사람들은 완성된 줄을 메고 마을을 한바퀴 돈다. 남녀노소가 모두 참여하여 줄을 메고 매우 역동적으로 놀이하며 마을을 누비는 이 과정은 새롭게 탄생된 용의, 날아다니는 존재로서의 생명력의 과시 내지는 용 출현의 형상화로 볼 수 있는 한편<sup>102</sup>, 높이 올려 매는 행위 그 자체를 용을 위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보다 분명한 ‘용섬김’은 당기고 난 줄의 처리 과정에서 나타난다. 대부분의 외줄 및 호남지역의 쌍줄은 공동체신이 좌정하고 계신 곳으로 여겨지는 당산에 감겨져 당산과 더불어 일년 내내 섬김의 대상이 된다. 줄이 용신으로 인식되는 한강변의 강촌에서는 당기고 난 쌍줄을 강물에 띄어 보낸다. 용을 원래의 거처인 물로 돌려보내는 것이다. 경북 포항시 모포리에서는 아예 줄을 골매기의 신체로 인식하고 동사에 영구보존하며 섬김으로써 극명한 ‘용섬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용섬김’의 모티프와는 달리 용을 자극하는 모티프도 나타난다. 우리는 기우제 등의 기우행위를 통해서 용을 자극하여 소망을 달성하고자 하는 모티프들을 쉽사리 발견할 수 있다. 문헌에 의하면, 나라에 가뭄이 계속될 때 용이 산다고 믿어지는 깊은 소에 범의 머리를 던져 넣었다.<sup>103</sup> 현전하는 기우제에서도 범은 아니지만 개, 혹은 돼지나 닭을

101 이장섭, 「촌락사회의 줄다리기 연구」,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4, pp.34-35.

102 高野一宏, 「야쿠지마의 보름밤 줄다리기」, 『제 1 회 아세아 민속놀이 국제학술대회 발표요지』, 1993(미간), p.4 에 의하면, 야쿠지마에서는 줄을 끌고 상하좌우로 흔들면서 가는 것을 뱀의 출현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일본의 경우, 이렇듯 줄을 메고 마을을 도는 것만으로 그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崔仁鶴, 「줄다리에 관하여」, 『韓國民俗學』 제 6 집, 民俗學會, 1973, p.73).

산 채로 잡아 용소에 던져 넣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이러한 관행들은 모두 ‘용자극’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줄다리기의 앞놀이인 무안용호놀이와 월송줄다리기에서 양편이 각각 용과 호랑이로 환치되어 줄을 당기는 것의 본원적 의미도 용 자극에 있다. 용이 가장 싫어하는 호랑이를 용과 맞붙게 함으로써 용을 자극하여 의도한 바를 달성하고자 하는 믿음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다. 무라야마의 자료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울산과 진주에서 기우행사의 일환으로 행해진 줄다리기는, 용의 신체인 줄을 잡아당김으로써<sup>104</sup>, 또는 두 마리의 용을 싸우게 함으로써<sup>105</sup> 용을 자극하여 비를 얻고자 하는 것이었다. 전북 정읍군 정량, 전남 순천 등의 자료에서 우리는 줄이 끊어져야만 줄다리기의 효험이 있다고 하여 줄이 끊어질 때까지 줄을 당기고, 마침내 줄이 끊어져야 줄다리를 끝내는 사례를 본다.<sup>106</sup> 이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은 『동국세시기』에 실린 제주의 조리지희이다.

濟州俗每歲八月望日男女共聚歌舞分作左右隊曳大索兩端以決勝負索若中絕兩隊卜地即觀者大笑以爲照里之戲.

남녀가 함께 모여 큰 줄을 당기다가 줄 가운데가 끊어져서 땅에 자빠지면 이를 지켜보던 이들이 크게 웃었다는 대목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문제이다. 내용이 워낙 소략하여 그 전말을 소상히 알 수는 없으나 큰 줄의 끊어짐을 의도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당기고 난 줄의 처리방식에서 즉시 줄을 토막 내는 것도 용의 몸을 마디마디 자르는 것으로서 마찬가지로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이와 같은 행위들은 용을 괴롭힘으로써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기우제의 용 자극 내지는 학대와 같은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용사신앙의 반영물로서 줄다리기에는 용에 대한 섬김과 자극의 모티프가 함께 채택되고 있음을 본다. 최덕원이 보고한 대둔도 수리의 갯제에서 용을 감화시키기도 하고 장두칼로 위협하기도 하여 제의적 목적을 관철하는 과정은 용사신앙의 양면성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이다.<sup>107</sup> 이처럼 초자연적인 존재를 섬기고 자극하며, 달래고 위협하는 양면성이야말로 초자연적 존재의 힘을 빌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을 때 구사되었던 전통적인 문제 해결방식 가운데 하나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103 『成宗實錄』, 5年 閏 6月 癸巳.

104 村山智順/박전열 역, 앞의 책.

105 村山智順, 『釋奠,祈雨,安宅』, 朝鮮總督府, 1938, p.140.

106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앞의 책, p.213.

107 崔德源, 『多島海의 堂祭』 -新安地域을 中心으로-, 學文社, 1983, pp.89-92.

## 4. 남은 문제들

그 동안의 현지조사 결과와 기존의 조사보고를 바탕으로 소략하게나마 줄다리기의 다양한 존재양상과 그 의미를 검토해 보았다. 그 결과 한국의 줄다리기는 전승집단의 규모, 줄의 형태, 편구성, 줄의 처리방식, 줄의 재료, 제사와의 관계 등에서 다양성을 보여주며 이러한 다양성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상관하면서 일정한 유형성을 보여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상이한 유형성에도 불구하고, 사회문화적 주술종교적 기능과 의미망에 있어서 일정한 보편성을 지니고 있음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소략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남아 있다.

첫째, 왜 호남지역에만 외줄다리가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는가?

둘째, 줄다리기의 유형성은 전승지역의 지리생태적, 사회문화적, 주술종교적 배경과 어떠한 연관성을 갖고 있는가?

셋째, 한국 줄다리기는, 수도재배를 비롯하여 타 문화요소와 어떠한 관련성을 맺고 있는가?

넷째, 한국 줄다리가 보여주는 유형성과 사회문화적, 주술종교적 의미는 다른 문화권에서 전승되는 줄다리에 비춰볼 때 어떤 독자성과 유사성을 지니는 것인가?

이와 같은 문제들에 답하기 위해서는 우선, 한국줄다리기의 존재양상에 대한 보다 광범위하고 정밀한 조사연구 작업을 통해서 지역성과 보편성의 문제를 천착해야 한다. 그런 후에 동아시아의 줄다리기와 연관 문화요소에 대한 비교 연구, 나아가서는 세계 각 문화의 줄다리에 대한 통문화적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